

한국 다설지역의 가옥 특성*

- 민가를 중심으로 -

이 승 호**

The Characteristics of Folk Houses at Heavy Snowfall Regions in Korea*

Seungho Lee**

요약 :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눈이 많은 지역을 선정하여 다설 현상이 민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상 자료를 바탕으로 영동지방(폭설 지역)과 북흥(다빈설 지역)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고, 답사에서 얻은 실측 자료와 면담 자료, 관련된 문헌 자료를 분석하였다.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의 민가는 집중형 가옥이며, 부엌이 넓다. 영동지방과 북흥의 민가 부엌의 넓이는 가옥 전체의 30~40%에 이른다. 사례지역의 민가에는 눈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이 발달하였다. 즉, 영동지방의 민가에는 뜨러이 있으며, 북흥의 민가에는 까대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는 눈이 가옥 안으로 들이치는 것을 막아준다. 또한, 눈이 많은 지역에서는 눈이 쉽게 흘러내릴 수 있도록 지붕 경사를 급하게 하였다.

주요어 : 다설, 집중형 가옥, 부엌 넓이, 뜨러이, 까대기, 지붕 경사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heavy and frequent snowfall events on folk houses by selecting those where there are known as heavy or frequent snowfall regions over Korea as cases. *Youngdong* regions is selected as a heavy snowfall region and *Bogheung* as a frequent snowfall region by analyzing the weather data. Also, actual observation data from the field survey, collected data from interview and some related documents have been analyzed. The folk houses where they locate in heavy or frequent snowfall regions have a concentrated type and a broad kitchen. The kitchen often occupies up about 30~40% of the whole house and lot. The folk houses used for case studies have some facilities to protect them from heavy or frequent snowfalls. *Teuruck* in *Youngdong* regions and *Kadaegi* in *Bogheung* are good examples of those facilities. Also, the steeply slanting roofs are common in the heavy or frequent snowfall regions to keep snow from being piled up on them.

Key Words : heavy and frequent snowfall, a concentrated type house, the size of kitchen, *Teuruck*, *Kadaegi*, roof inclination

1. 서론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은 넓지 않지만 남북으로 길고 지형이 복잡하여 기후 특성이 지역별로 다양하다. 우리나라 기후의 다양성은 식생의 분포에서도 확인된다. 이와 같이 자연 환경은 서로 관련되어 총체적으로 나타난다. 기후는 자연 환경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동일한 주거 문화 지역은 기후와 지형을

포함한 풍토를 기초로 형성되며(Kniffen, 1965), 풍토는 우리나라 각 지역의 문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문화 요소의 하나인 가옥은 지역별로 다양한 구조와 경관을 보인다. 가옥은 비와 바람 혹은 추위와 더위를 차단하거나 조절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구조와 경관은 기후 특성을 뚜렷하게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눈[雪]은 다른 기상 요소와 달리 순간적으로 피해를 주기보다는 장시간에 걸쳐 쌓인 상태에서 가옥에 치명적인 손상

* 이 논문은 2000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0-041-C00668).

** 건국대학교 이과대학 지리학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Konkuk University)

을 줄 수 있다. 이점에서 강설의 특성은 가옥 경관에 분명하게 반영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가옥 경관은 지역별로 다양하였으나, 국민 소득의 향상과 더불어 점차 보편화되는 경향이다. 소득의 향상에 따라 과학 기술과 문명의 혜택은 가옥의 재료뿐만 아니라 지붕의 경사, 평면 형태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 더욱이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취락구조 개선 사업은 농촌 지역의 경관과 가옥 구조를 혁신적으로 뒤바꿔 놓았다. 그러나 강풍지역이나 다설지역과 같이 혹독한 기상 현상이 출현하는 지역에서는 오늘날에도 독특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가옥이 다수 남아 있다. 이와 같은 민가에 대한 이해는 지역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하게 쓰일 수 있다.

지리학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민가에 대한 연구는 주로 문화지리적인 측면(장보웅, 1977: 1980 등)에서 접근하고 있어서 기후가 민가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약하다. 김기덕(1999)과 김덕완(1999)은 강풍 지역인 제주도와 호남 서해안을 조사지역으로 선정하여 그 지역의 기후 특성과 가옥 구조와의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다설지역의 민가에 대한 연구는 장보웅(1977)의 울릉도 우데기에 대한 연구가 유일하다. 울릉도와 더불어 다설지역인 영동지방과 호남지방의 노령산맥 서사면 등의 민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다설지역 중에서 사례지역을 선정하고 각 지역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가옥 구조와 경관을 조사하여, 다설 현상이 가옥의 형태와 구조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가옥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 하나의 요소에 대한 이해보다는 강설현상과 관련된 요소를 파악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2. 연구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기상청에서 관측한 강설량 자료, 가옥의 특성과 관련된 문헌 자료, 현지 답사에서의 실측 자료, 그리고 지역 주민과의 면담 자료 등이다. 기상 자료는 우리나라의 81개 기상 관측소의 최근 30년 간(1970년 11월~2000년 3월) 강설 자료이다.

우리나라의 다설지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측 지점별 연 강설량과 적설량, 연 강설일수와 적설일수, 대설일의 빈도 등의 분포도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적설 5cm 이상을 대설로 간주하였다. 앞의 분포도를 분석하여 폭설 빈도가 높은 지역과 강설 빈도가 높은 지역을 사례 연구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가옥의 실측 자료는 각 지역별로 수 차례에 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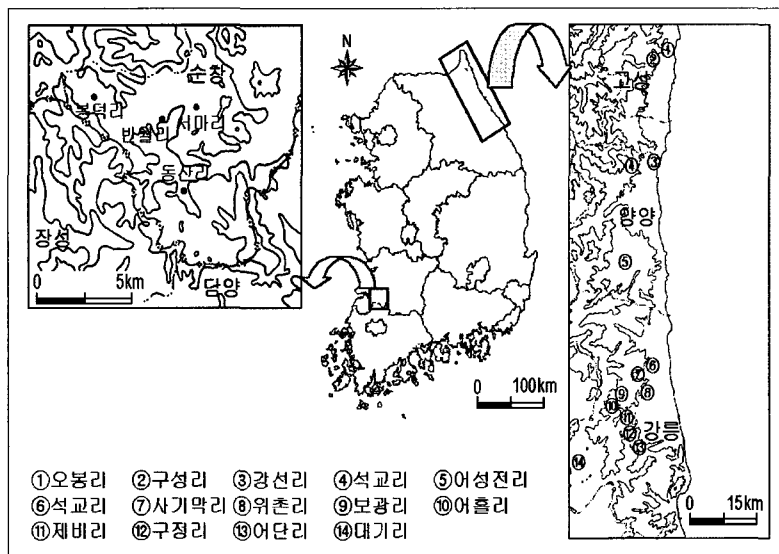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지역과 민가 조사 마을의 위치

표 1. 가옥 구조 조사 마을의 목록

구분	지역	면*	리	조사 민가 수	
눈이 많이 오는 지역	강원, 강릉	구정	구정, 어단, 제비	16	
		사천	사기막, 석교, 방동하	15	
		성산	보광, 어흘, 위촌	16	
		왕산	대기	7	
	강원, 고성	죽왕	오봉, 구성	11	
눈이 적게 오는 지역	강원, 양양	강현	석교, 강선	7	
		현북	어성전	13	
	전북, 순창	북흥	동산, 반월, 서마, 봉덕	42	
		경남, 고성	구만	효락	4
		경남, 의령	봉수	죽전, 신현	11
부립	여배, 대곡		4		
눈이 적게 오는 지역	경남, 창녕	유어	선소	4	
		악양	등촌, 평사	6	
	전남, 보성	득량	오봉, 우천, 동촌	13	
		조성			

친 현지 답사에서 수집하였다. 제 1차 답사는 예비 답사로써, 강설 분포의 분석에서 얻은 결과를 이용하여 영동권(강릉시 성산면 보광리, 구정면 금광평 일대)과 호남권(순창군 북흥면 일대)의 사례 지역을 선정하고(그림 1), 2000년 11월에 각각 2박 3일씩 실시하였다. 예비 답사에서는 주민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례지역으로서의 적합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조사 항목과 조사 대상 가옥의 일부를 선정하였다.

본 답사는 강설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인 2000년 12월부터 3월 사이에 걸쳐서 각각 2박 3일씩의 10여 차례 집중적인 지역 조사를 행하였다. 본 답사에서는 예비 답사를 거쳐 선정한 조사 대상 가옥을 방문하여 가옥의 평면 구조, 배치, 향, 지붕의 경사, 특수 시설 등을 실측하고 예비 답사 때의 면담 사항을 확인하였다. 답사에서 얻은 자료를 정리한 후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1년 6, 7, 8월에 각각 한 차례씩 현지 답사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눈이 많은 지역 중 폭설지역인 영동지방에서 조사한 민가는 강릉 10개리 54개 가옥, 고성 2개리 11개 가옥, 양양 3개리 20개 가옥이다. 눈이 자주 내리는 지역으로 선정된 전북 순창에서는 4개리 42개 가옥을 조사하였다. 여기서 눈이 자주 내리는 지역은 상대적 의미로 적설일수에 비하여 대설의 빈도(5cm 이상의 신적설일)가 적은 곳을 뜻한

다. 눈이 적게 오는 지역의 가옥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경남 고성, 의령, 창녕, 하동에서 8개리 29개 가옥, 전남 보성에서 3개리 13개 가옥을 조사하였다(표 1). 조사한 마을의 선정은 현재까지 농촌 생활 양식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촌락으로 한정하였다.

조사한 민가의 평면도를 분류하여 조사 빈도가 가장 높고 보편적인 것을 사례 민가형으로 제시하였다. 이때 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목수의 도움을 받았다. 조사지역 중 영동지방은 남북 방향으로의 직선 거리가 100여km에 이르러 지역 간에 강설 분포의 차이가 있으므로 강릉지역과 양양·고성지역으로 구분하였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해안에 가까운 곳과 산지 지역 간에는 강설 분포의 차이가 있으므로 영동지방 민가의 외부 형태를 파악하는 경우는 두 지역을 구분하였다. 또한 편의상 전북 순창군을 북흥지역, 그리고 경남 남해안의 조사지역을 창녕·의령지역이라고 정하였다.

3. 연구지역의 선정과 강설 특성

1) 연구지역의 선정

연구지역을 선정하기 위하여 신적설량, 적설일수, 강도별 적설일수 등의 분포를 파악하였다. 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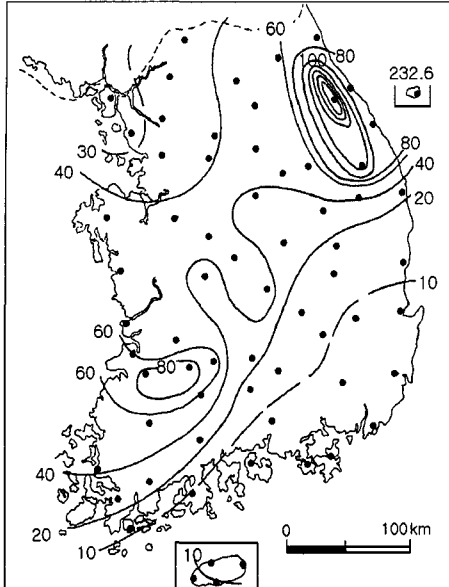


그림 2. 우리나라의 신적설량(cm)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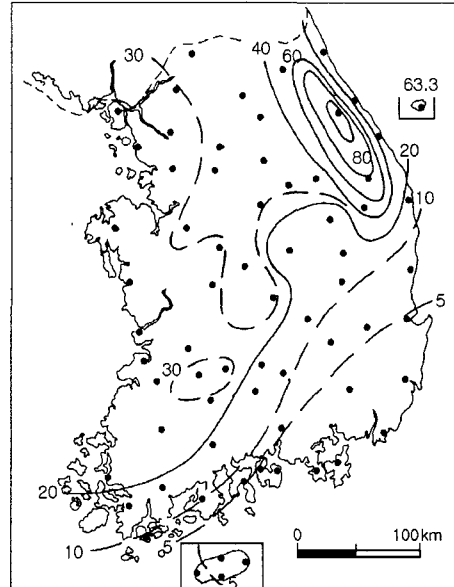


그림 3. 우리나라의 적설일수 분포

설 현상은 다른 기상 요소에 비하여 지형과 해양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역 차이가 크다.

신적설량이 가장 많은 곳은 대관령(258.8cm)이다. 울릉도(232.6cm)도 다른 곳에 비하여 신적설량이 월등하게 많다(그림 2). 그밖에 영동지방(80~200cm)과 정읍, 임실을 포함하는 노령산맥의 서쪽 사면도 신적설량이 많은 곳(80cm 이상)이다. 반면 남해안과 영남지방, 경기도 서해안지방은 신적설량이 적은 곳이다. 서부 산지를 제외한 경남과 남해안지방은 신적설량이 10cm를 넘지 않는다. 대체로 태백산맥의 동사면과 소백산맥, 노령산맥의 서사면 쪽에서 신적설량이 많고 그 반대쪽 사면으로 갈수록 적다.

많은 눈이 내려도 쉽게 녹는 곳보다는 적은 양의 눈이 내리더라도 오랫동안 쌓여 있는 곳에서 주민 생활에 대한 눈의 영향이 더 크다. 즉, 적설일수가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대관령의 신적설량과 신적설일수는 울릉도와 큰 차이 없으나, 적설일수는 113.1일로 울릉도(63.3일)의 두 배에 가깝다(그림 3). 해발고도가 높은 곳은 기온이 낮아서 일단 내린 눈이 오랫동안 쌓여 있게 되므로, 태백산지와 영동지방 그리고 노령산지 등의 적설일수가 많다. 반면 영남지방과 남해안지방의 연평균 적설일수는 대부분 5일 이하이다.

신적설일수도 대관령과 울릉도가 다른 지역보다 두드러지게 많다. 대체로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노령산맥의 서쪽 사면에서는 대부분 신적설일수가 20일을 넘는다. 반면 그 산맥의 반대쪽 사면에는 그 이하이다. 추풍령과 그 서쪽의 대전, 청주, 보은 등과 강원 영서지방도 신적설일수가 25일을 넘는 곳이다. 노령산맥 서사면과 전북의 해안도 신적설일수가 많다. 반면, 영남지방과 남해안, 경기 서해안지방은 신적설일수가 적은 곳이다. 대체로 37°N 이남의 동해안과 경남의 남해안지방은 신적설일수가 10일 미만이다. 경기 서해안과 중부 내륙지방인 이천, 충주 등에서도 신적설일수가 20일을 넘지 못한다.

이상에서 영동지방과 울릉도, 노령산맥의 서사면은 다설지역으로, 영남지방과 남해안, 경기도 지방은 눈이 적게 내리는 지역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영동지방과 노령산맥의 서사면 지역을 다설지역으로, 영남지방과 남해안지방을 눈이 적게 내리는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울릉도는 다설지역이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연구(장보웅, 1977)가 시도된 지역이다.

2) 연구지역의 강설 특성

영동지방의 기상 관측소는 속초와 강릉, 대관령에 있다. 선행연구(최진식, 1990; 박병익·윤석은,

1997 등)에 의하면, 이 지방의 강설량은 북동 기류에 의한 것이 많다. 그러므로 해안에서 산지로 갈수록 강설량이 많은 경향이어서 연평균 신적설량은 속초(78.7cm)와 강릉(83.6cm)보다 대관령에서 훨씬 많다. 신적설일수도 대관령(48.2일)이 속초(13.1일)와 강릉(13.0일)보다 많다.

영동지방에서는 다른 지방의 신적설량이 1월에 두드러지게 많은 것과 달리 2월에 상대적으로 많다. 대관령의 2월 신적설량은 68.8cm로 1월(69.1cm)과 비슷하며 속초와 강릉에서 1월의 신적설량이 2월보다 각각 1.1cm, 3.8cm가 많은 것에 불과하다(표 2). 대관령에서는 3, 4월의 적설량도 64.7cm에 이른다. 즉, 다른 지방의 강설량이 1월에 집중된 것에 비하여 영동지방에서는 기온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2월 이후의 강설량이 상대적으로 많다.

대설일의 비율이 대관령에서는 25.9%이며 속초와 강릉에서는 각각 34.4%, 35.4%이다. 월별로는 2월에 가장 높아서 속초에서는 40.4%, 강릉에서는 42.5%이다. 반면 대관령에서는 10cm 이상 적설일의 비율이 59.5%이며 속초와 강릉에서는 각각 37.9%, 35.4%이다.¹⁾ 2월의 그 비율이 가장 높아서 대관령에서는 80.7%에 이르며 속초와 강릉도 각각 40%를 넘는다. 즉, 속초와 강릉에서는 2월에 폭설 형태의 강설이 많고 대관령에서는 속초와 강릉에 비하여 폭설의 비율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다.

노령산맥 서사면의 다설지역에는 정읍, 입실, 군산, 부안 등에 기상관측소가 있다. 이 지역의 강설은 북서 계절풍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진식, 1990; 박병익·윤석은, 1997). 그러므로

표 2. 영동지방의 강설 분포

요소	지점	10-11월	12월	1월	2월	3-4월	전년
신적설량 (cm)	속 초	0.4	9.7	30.2	29.1	9.3	78.7
	강 룡	1.0	10.7	33.2	29.4	9.4	83.6
	대관령	16.2	39.9	69.1	68.8	64.7	258.8
신적설량 0cm 이상일수	속 초	0.2	1.5	4.2	4.7	2.5	13.1
	강 룡	0.4	1.5	4.3	4.0	2.8	13.0
	대관령	3.8	9.0	10.9	10.7	13.7	48.2
신적설량 5cm 이상일수	속 초	0.0	0.3	1.6	1.9	0.7	4.5
	강 룡	0.1	0.4	1.6	1.7	0.8	4.6
	대관령	0.8	2.0	2.8	3.1	3.8	12.5
적설량 10cm 이상일수	속 초		0.8	4.5	5.5	1.2	12.0
	강 룡	0.0	0.8	4.6	4.6	1.0	11.0
	대관령	1.6	7.1	16.4	20.5	18.7	64.3

주: 빈칸은 적설량 10cm 이상의 경우가 없는 경우임

표 3. 노령산맥 서사면 지역의 강설 분포

요소	지점	10-11월	12월	1월	2월	3-4월	전년
신적설량 (cm)	정 읍	5.9	27.1	31.6	15.0	1.3	81.0
	입 실	7.6	24.0	26.4	17.6	4.7	80.4
신적설량 0cm 이상일수	정 읍	1.4	4.8	7.7	5.0	0.8	19.7
	입 실	2.1	6.3	8.2	5.6	2.2	24.4
신적설량 5cm 이상일수	정 읍	0.4	1.9	2.4	0.9	0.0	5.6
	입 실	0.4	1.5	1.8	1.1	0.1	4.9
적설량 10cm 이상일수	정 읍	0.3	2.4	2.5	1.3		6.5
	입 실	0.3	2.0	2.9	1.4	0.1	6.7

주: 빈칸은 적설량 10cm 이상의 경우가 없는 경우임

북서 계절풍에 대하여 풍하지역인 산청, 함천 등과는 강설량의 차이가 크다. 앞의 지점 중 정읍(81.0cm)과 임실(80.4cm)의 신적설량이 많다. 신적설일수는 정읍과 임실이 각각 19.7일, 24.4일로 다른 지역보다 많다. 영동지방과 비교하면, 신적설량은 비슷하나 신적설일수가 7~10일 많다. 정읍과 임실의 월별 신적설량의 분포를 보면, 영동지방과 달리 1월에 집중되어 있으며 12월에도 그 양이 많다(표 3). 대설일의 비율은 정읍이 28.4%, 임실이 20.1%로 영동지방에 비하여 적다. 즉, 이 지역은 영동지방에 비하여 강설의 빈도는 많지만 대설의 빈도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0cm 이상 적설일의 비율도 정읍이 22.6%, 임실이 17.7%로 속초나 강릉에 비하여 15~20% 낮다.

이상에서 영동지방과 노령산맥 서사면 지역의 강설 특성을 비교하여 보면, 영동지방은 폭설지역, 노령산맥 서사면은 눈이 자주 내리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4. 폭설(暴雪)지역인 영동지방의 가옥 특성

1) 평면 구조

강릉지역에서 볼 수 있는 민가는 대부분 'ㄱ'자형 田자집으로 6칸집이 기본이다(그림 4).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 8칸 집으로 확대된다²⁾. 이 지역 민가의 구조는 'ㄱ'자형 田자집에 정지 앞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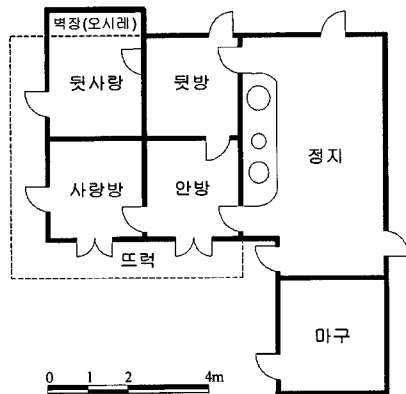


그림 4. 강릉지역의 민가 평면도(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 최중국씨 댁)

로 마구가 추가되어 'ㄴ'자형을 취한다. 가옥의 전면에서 보면 정지는 오른쪽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정지에서부터 순서대로 안방과 사랑방이 있다. 그 뒤쪽에는 정지 옆으로 뒷방(혹은 도장방)과 뒷사랑 순이다. 8칸 집인 경우, 가옥 전면에는 안방과 사랑방 사이에 셋방(또는 새입방이라고도 함)이 추가되며, 뒷면에는 정지 옆으로 뒷방, 새입 뒷방(혹은 도장방), 뒷사랑 순으로 배열된다. 이와 같은 평면 형태는 조사지역 중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에서부터 북쪽으로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와 중광정리까지 분포한다.

양양·고성지역의 민가에는 마루가 있는 것이 강릉과 다르다(그림 5). 또한 대부분이 8칸 집이다. 마루가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강릉지역과 같이 'ㄱ'자형 田자집의 기본 형태를 취한다. 8칸집의 전면에서 보면, 오른쪽에 정지가 있고 그 왼쪽으로 마루와 아랫사랑, 웃사랑방이 있다. 뒷면에는 정지 안방, 웃방, 도장방 순이다. 6칸집일 경우, 전면은 정지와 마루, 사랑방, 뒷면은 정지, 안방, 도장방 순으로 배열된다. 이와 같은 형태는 양양군 강현면 석교리, 강선리와 고성군 죽왕면 구성리, 오봉리 등에서 조사되었다.

영동지방의 민가는 정낭(화장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하나의 지붕 아래에 설치되어 있다(그림 4, 5 참조). 정지에서는 모든 방향으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안방과 뒷방으로 통하는 문이 있다. 또한 각각의 방은 서로 출입문을 두어 실내에서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사랑방과 뒷사랑 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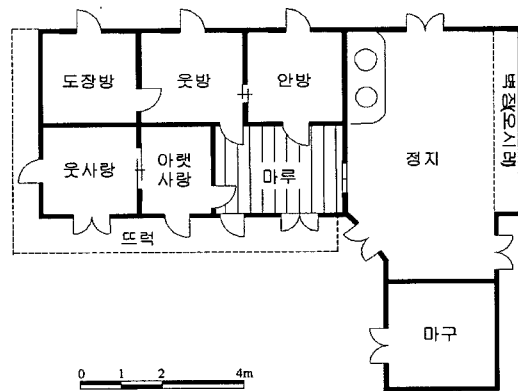


그림 5. 양양지역의 민가 평면도(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석교리 김금옥씨 댁)

표 4. 영동지방 민가의 공간별 면적

(단위: m², %)

구 분		방	마루	정지	마구	전체
강릉 지역	6칸 집	23.04(47.4)	없음	19.80(40.8)	5.76(11.9)	48.60
	8칸 집	34.56(57.5)	없음	19.80(33.0)	5.76(9.6)	60.12
양양·고성지역		25.82(40.3)	9.98(15.1)	20.47(31.1)	7.83(12.2)	64.09

주: 양양·고성지역의 조사 가옥은 대부분 8칸 집이다. () 안의 숫자는 전체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와 안방과 사랑방 사이에는 출입문이 없거나, 설치된 경우에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마구는 정지와 접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대부분 민가에서는 소의 여물을 사랑방의 아궁이에서 끓이는 데 반하여, 이 지역의 경우는 정지에서 끓인다. 이는 다설 현상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의 눈은 폭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설 현상이 있을 때 외부로의 출입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³⁾. 그러므로 정지에서 소여물을 끓여서 바로 마구의 구멍으로 넣어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영동지방의 민가는 정지를 중심으로 가옥의 모든 기능이 집중되어 있다.

영동지방의 민가에서 정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넓다. 강릉지역의 경우, 6칸 집의 정지 면적은 가옥 전체의 40.8%인 19.8m²에 이르며 8칸 집에서도 33.0%에 달한다(표 4). 반면에 방 전체가 차지하는 면적은 각각 47.4%(23.0m²), 57.5%(34.6m²)이다⁴⁾. 양양·고성지역의 경우도 비슷하지만, 마루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방의 면적이 줄었다. 방의

면적은 가옥 전체의 40.3%인 25.8m²이며 정지는 31.1%인 20.5m²이다. 이는 겨울철 실내에서 여성들의 생활 공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가옥이 정지를 중심으로 집중된 것과 관련 있다. 즉, 정지가 넓은 것은 겨울철의 다설에 대비하여 작업 공간과 저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영동지방 민가의 평면 형태는 원래 기본 구조를 유지하면서 점차 변형되고 있다(그림 6). 보일러가 설치된 후, 열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집 앞에 설치된 뜨럭 앞 가장자리에 알루미늄 샷시문을 설치하였다. 가옥의 전면과 측면에 샷시문을 설치한 가옥에서 샷시문은 마치 울릉도의 우테기와 비슷한 형태를 취한다. 정지는 원래의 크기를 유지하면서 입식 부엌으로 개량되었다. 안방과 뒷방, 사랑방과 뒷사랑(혹은 도장방)이 각각 하나로 통합되어 방의 수가 줄면서 크기가 확대되었다. 이때 8칸 집의 경우는 셋방과 새입뒷방을 안방, 뒷방과 하나로 합쳐져 방의 크기를 더욱 확대한 경우도 있다. 이는 핵가족화하면서 가족 수가 줄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와 달리 대형 가구와 각종 가전 제품이 보급되면서 방의 크기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마구는 방이나 화장실, 다용도실 등으로 바뀌었다.

영동지방의 민가에서 정지는 남향집인 경우 대부분 동쪽에 두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남향집 민가의 부엌을 서쪽에 두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김광연, 1997)에 비추어 볼 때 특이하다. 영동지방의 남향집에서 정지를 동쪽에 두는 것은 이 지역의 다설 현상과 관련 있다고 생각한다. 북동 기류가 강할수록 영동지방의 산간지역에 많은 눈이 내린다. 그러므로 서쪽에 정지를 두면 사랑방이 동쪽으로 위치하여, 북동 기류에 의해서 내리는 눈이 사랑방으로 몰아쳐 사랑방에서의 생활이 불편할 수 있다. 정지가 동쪽에 배치될 경우는 동쪽으로 나있는 문의 사용이 제한을 받는 정도이다. 영동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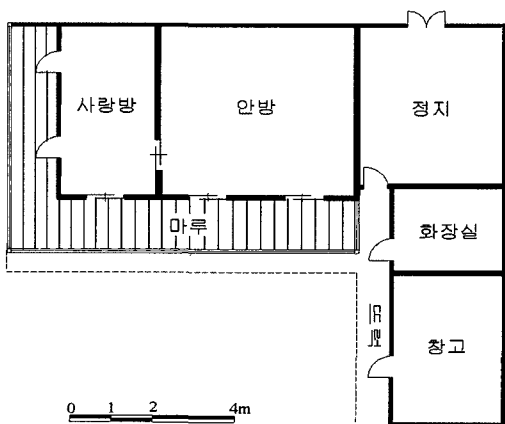


그림 6. 강릉지역의 개조된 민가 평면도(8칸집: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 박병관씨 덕)

방 민가는 정지에서 모든 방향으로 문이 있다. 이것이 다설 때문에 발달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사방으로 정지의 문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다설 시 동쪽으로 나있는 문을 사용하지 않아도 생활에 큰 불편이 없다는 점이 주민들의 증언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외부 형태

영동지방의 민가에는 모두 뜨럭이 설치되어 있다. 뜨럭은 방과 방, 방과 정지 사이를 이동하는 공간이다. 즉, 가옥의 모든 공간은 뜨럭을 통하여 출입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민가에서 가옥의 중앙을 통하여 출입하는 것과 달리 영동지방의 민가에서는 정지 앞을 통하여 뜨럭으로 올라선 후 집안으로의 출입이 이루어진다. 뜨럭을 통하여 이동하는 것은 겨울철의 다설 현상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한다. 즉, 많은 눈이 내릴 경우 외부에서의 활동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행 자체가 곤란하여, 모든 시설을 하나의 가옥 안에 두어 통행이 쉽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이 지역의 뜨럭은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는 유사한 모양의 쪽담, 토방 등과는 달리 겨울철에 그 기능이 중요하다.

뜨럭은 가옥 전면에서 보면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다가 정지 앞에서 높이가 낮아진다. 정지 앞과 방 앞에 설치된 뜨럭 사이에는 하나의 턱을 두어 계단 역할을 한다. 가옥 전면의 뜨럭 평균 높이는 강릉지역의 경우 51.3cm, 양양·고성지역은 55.0cm

이다. 그러나 정지 앞은 두 지역 모두 30cm 이하이다. 그러므로 가옥 전면의 뜨럭은 보통 사람이 넘어 다니기에는 불편한 높이이다. 뜨럭의 높이가 위치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터 돌움과 구별되는 점이다. 또한 터 돌움의 경우에는 가옥의 중앙으로 출입이 가능하게 층계가 설치되었다는 점도 뜨럭과 구별되는 점이다.

뜨럭의 높이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대체로 해안에서 낮고 산지에서 높은 경향이다. 그림 7은 각 마을 중심지의 해발고도와 그 마을 가옥의 뜨럭 평균 높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두 개의 변수 사이에는 $r = 0.663$ 의 상관 관계가 있으며 유의수준 $\alpha=0.01$ 에서 유의하다. 대체로 조사 대상 마을의 해발고도가 높을수록 뜨럭의 평균 높이도 높아진다. 해발고도가 100m 이상인 마을의 평균 뜨럭 높이는 대부분 50cm 이상이며 60cm를 넘는 가옥도 많다. 반면에 해발고도가 100m 이하인 마을의 경우는 위촌리를 제외하면 그 높이가 50cm를 넘지 않는다. 특히 해안에 위치하는 방동하리에서는 대부분 가옥의 뜨럭 높이가 30cm를 넘지 않는다. 위촌리는 마을의 평균 해발고도가 55m에 불과하지만, 배후에 급사면의 산을 끼고 있다는 점이 다른 마을과 구별된다.

해발고도가 높은 마을일수록 뜨럭의 높이가 높아지는 것은 북동 기류에 의한 강설량이 해안에서 산지로 갈수록 많은 것과 관련 있다고 보인다. 뜨럭이 폭설에 대비하여 설치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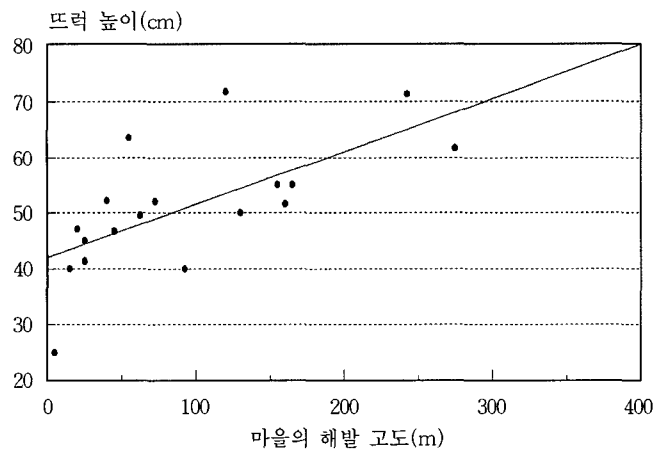


그림 7. 영동지방 마을의 해발고도와 뜨럭의 평균 높이와의 관계



사진 1. 뜨럭과 그 앞에 쌓인 눈(고성군 왕곡면 구성리 정병식씨 덕)

않지만⁵⁾, 뜨럭이 폭설 시 편리한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확인된다. 폭설 시 지붕에 쌓인 눈은 하중에 의해서 흘러내리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쓸어 내려야 한다. 이때 지붕에서 떨어지는 눈이 마당에 쌓일 수 있도록 뜨럭을 설치하였다(사진 1). 그러므로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일수록 뜨럭의 높이를 높여야 했을 것이다.

조사 마을 뜨럭의 평균 너비는 118.2cm이다. 조사 마을 중 뜨럭의 너비가 가장 넓은 곳은 성산면 보광리 삼왕동 마을로 145.0cm이다. 같은 면의 위촌리도 평균 143.6cm로 뜨럭의 너비가 넓다. 강릉 지역의 전체 뜨럭의 평균 너비는 130.4cm이며 마을 대부분의 뜨럭 평균 너비가 120cm를 넘는다. 반면 양양군 죽왕면 구성리(80.6cm), 오봉리(87.5cm), 석교리(91.4cm) 등은 뜨럭의 너비가 비교적 좁은 마을이다. 양양·고성지역 마을의 뜨럭 평균 너비는 100.5cm이다. 대체로 조사지역 내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뜨럭의 너비가 좁고 남쪽으로 갈수록 넓다. 이는 강릉이 속초보다 강설량이 더 많은 것과 관련 있다고 생각한다.

조사지역 가옥의 지붕 재료는 함석이 가장 많다. 지붕의 평균 경사는 25.2°이며 그 재료와 관련이 있다. 기와 지붕일 때는 평균 경사가 26.8°이며 슬레이트와 함석 지붕은 각각 24.8°, 24.7°이다(표 5). 지붕의 경사가 함석일 때보다 기와일 때 더 급한 것과 점차 함석 지붕으로 바뀌고 있는 것은 이 지역의 많은 눈과 관련 있다고 생각한다. 기와에 비하여 함석이 열 전달이 빠르고 눈이 쉽게 흘러내리기 때문에 함석 지붕의 경사가 비교적 완만하다.

표 5. 영동지방 민가의 지붕 재료와 경사

지붕의 재료	지붕의 경사(°)
기와	26.8
슬레이트	24.8
함석	24.7
전체 평균	25.2

같은 이유로 지역 주민들이 함석 지붕을 선호한다. 또한 조사지역의 가옥에는 대부분 처마에 물받이 시설이 없다. 설치한 경우는 많은 눈에 의해서 대부분 파손되었다.

5. 눈의 빈도가 높은 북흥의 가옥 특성

1) 평면 구조

북흥의 가옥은 대부분 ‘—’자형이며 홑집과 겹집 구조가 혼재한다. 조사 가옥 42개 중 26개 가옥이 홑집이고 16개 가옥이 겹집이다. 북흥의 민가는 대부분 한국 전쟁 후인 1950년대 중반에 건축되었다⁶⁾.

당시 민가의 기본형은 그림 8과 같이 두 개의 방과 정제(부엌), 마루, 작은 정제(부엌)⁷⁾가 있는 전면 3칸의 ‘—’자형 홑집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는 그림 9와 같이 큰방과 작은방 사이에 가운데 방을 두고 그 전면으로 큰방 앞의 마루를 연장하여 전면 4칸의 ‘—’자형 홑집을 건축하였다. 경우에 따라 전면 3칸의 ‘—’자형 홑집에 큰방과 정제 뒤로 각각 도장방과 정제방을 추가한 전면 3칸의 ‘—’자형 겹집을 짓기도 하였다. 드물게 전면 4칸의 ‘—’자형 홑집에 도장방과 정제방이 추가된 전면 4칸의 ‘—’자형 겹집도 볼 수 있다.

가족 수가 늘어 생활 공간의 확대가 필요한 경우, 작은 정제를 방으로 바꾸고 옷방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근래에는 가옥의 좌·우측에 까대기를 설치하여 생활 공간을 더욱 확대하였다. 까대기는 전남·북의 대부분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시설로, 가옥의 측면에 달아낸 것이다. 까대기는 바람과 눈보라로부터 가옥을 보호해 줄뿐만 아니라 가옥의 공간을 확장시키기도 한다.

이곳의 민가도 영동지방과 같이 화장실을 제외한 모든 공간이 하나의 지붕 아래 설치되어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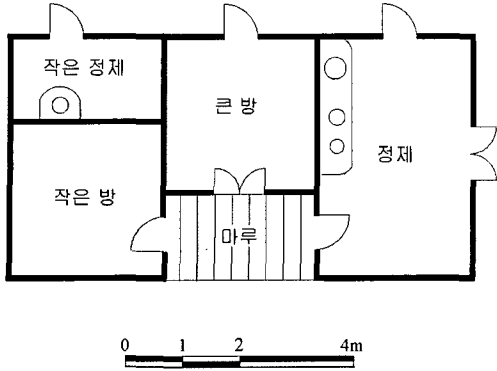


그림 8. 복흥의 3칸 홑집 민가(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반월리 정진산씨 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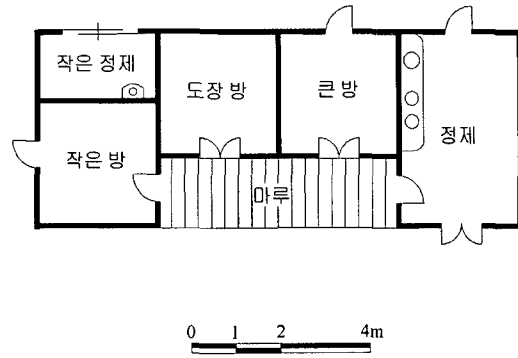


그림 9. 복흥의 4칸 홑집 민가(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동산리 유학동씨 덕)

서, 작은 정제를 제외하고 마루에서 모든 공간으로 통행이 가능하다. 마루에서 정제로 출입문이 없는 경우는 큰방과 정제 사이에 문이 있다. 가옥 외부에서 안으로 출입할 때는 영동지방과 달리 가옥의 가운데에 위치한 마루를 통한다. 이처럼 가옥의 모든 공간이 한 건물 안으로 집중된 것은 겨울철에 눈이 자주 내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복흥 민가의 각 공간별 면적을 보면, 정제가 상대적으로 넓다(표 6). 전면 4칸 곁집을 제외하고 정제(11.6m²)와 작은 정제(4.1m²)를 합한 면적이 15.7m²이다. 전면 3칸 홑집의 정제 면적은 가옥 전체의 45.2%를 차지하고 전면 3칸 곁집에서는 33.4%, 전면 4칸 홑집에서는 33.9%이다. 전면 4칸 곁집의 부엌 전체 면적은 가옥 면적의 31.6%인 19.8m²로 다른 가옥에 비하여 부엌의 면적이 좁다. 그 대신 마루의 면적이 부엌의 면적과 같은 19.9m² (31.6%)로 다른 가옥의 두 배를 넘는다.

대부분의 경우 외양간은 작은 정제 가까운 곳에 까대기를 달아서 설치하였다. 외양간은 영동지방과

같이 본체와 접하지만 가옥의 측면이나 후면에 자리한다. 영동지방의 가옥이 정지에서 모든 방으로 불을 피운 데 반하여, 복흥에서는 큰방은 정제에서 작은방은 작은 정제에서 불을 피웠다. 그러므로 이곳의 외양간은 작은 정제와 가까운 가옥의 측면이나 후면에 설치할 수 있다. 즉, 작은 정제에서 끓인 소여물을 바로 옆에 마련된 구시⁸⁾로 퍼준다.

2) 외부 형태

복흥의 민가에서 영동지방의 민가와 비교하여 특징적인 것은 까대기이다. 조사 대상 42개 가옥 중 10개 가옥을 제외하고 까대기가 설치되어 있다. 까대기가 없는 가옥은 곁집이거나,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가옥의 측면에 까대기를 설치한 경우는 24개 가옥이며 8개 가옥에는 후면에, 7개 가옥에는 전면에 설치하였다(표 7). 전면에 까대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120~150cm 너비의 차양을 설치하였다. 가옥의 뒷면으로 까대기를 달아낸 경우는 그 공간이 대부분 방으로 꾸며졌다.

표 6. 복흥 민가의 공간별 면적

(단위: m², %)

구 분		방	마루	정제(부엌)	작은 정제	전체
전면 3칸집	홑집	14.9(42.9)	4.1(11.9)	11.6(33.3)	4.1(11.9)	34.7
	곁집	23.1(49.1)	8.3(17.5)	11.6(24.6)	4.1(8.8)	47.1
전면 4칸집	홑집	22.3(48.2)	8.3(17.8)	11.6(25.0)	4.1(8.9)	46.3
	곁집	23.1(36.8)	19.9(31.6)	15.7(25.0)	4.1(6.6)	62.9
평균 비율(%)		44.3	19.7	27.0	9.1	100

주: () 안의 숫자는 전체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 것임.

표 7. 복흥 민가의 까대기 설치 공간별 가옥 수

구 분	조사 가옥 수
전면에만 까대기 설치된 가옥	5
후면에만 까대기 설치된 가옥	3
측면에만 까대기 설치된 가옥	17
전면과 측면에 까대기 설치된 가옥	2
후면과 측면에 까대기 설치된 가옥	5
까대기가 설치되지 않은 가옥	10

이 경우 홑집에서 겹집으로 가옥의 구조가 바뀌었다. 가옥의 측면에 까대기를 설치한 경우는 방이나 다용도실, 욕실 등으로 이용된다. 가옥의 전면에 까대기를 설치한 경우는 후에 보일러를 설치하면서 방이나 거실 등의 공간으로 흡수되었다⁹⁾.

초가일 때 짚으로 엮어서 가옥을 둘러싸거나 가옥의 일부를 가린 까대기는 북서 계절풍에 동반하여 내리는 눈이 집안으로 들이치는 것을 막는데 효과적이다. 영동지방과 달리 복흥의 눈은 북서풍이 강할수록 많이 내리기 때문에 눈보라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복흥에서는 가옥 안으로 들이치는 눈보라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였다. 새마을 운동이 시작된 이후 지붕이 개량되면서 까대기의 재료도 슬레이트와 벽돌로 바뀌었고 규모도 확대되었다. 지붕 개량이 이루어진 후, 가옥 전면에 까대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는 마루에 유리문을 달아 겨울철의 눈보라를 막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강수 시의 생활의 편리를 위하여 가옥 전면에 차양을 설치하였고 차양이 설치된 공간까지 방이나 거실을 확대한 가옥도 있다. 차양만 설

표 8. 복흥 민가의 지붕 재료와 경사

지붕의 재료	지붕의 경사(°)
기 와	26.4
슬레이트	26.7
함 석	28.0
전체 평균	26.8

치한 가옥은 겨울철에 눈보라를 막고 보온을 위하여 비닐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사진 2). 차양의 앞에 샷시문을 달아 눈보라를 방지하는 가옥도 있다¹⁰⁾.

복흥 민가의 지붕 재료는 슬레이트가 가장 많다. 조사 대상 가옥 중 75%인 30개 가옥이 슬레이트 지붕이며 기와와 함석이 각각 5개 가옥, 초가 2개 가옥이다. 복흥 민가의 지붕 평균 경사는 26.8°이다(표 8). 기와와 슬레이트 지붕은 각각 26.4°, 26.7°로 거의 비슷하며 함석 지붕의 경사가 28.0°로 가장 급하다. 함석 지붕의 경사가 급한 것은 지붕 개량을 할 때 슬레이트나 기와를 걷어내지 않고 그 위에 함석을 덮으면서 용마루를 높였기 때문이다. 복흥에서는 영동지방과 달리 처마 밑에 물받이를 설치한 가옥이 많다.

복흥의 민가에는 주변에 토방이 설치되어 있다. 토방은 가옥 둘레에 설치되어 안으로 물이 흘러드는 것을 막아준다. 토방의 평균 높이는 31.2cm이나 낮은 가옥은 10cm 정도이며 높은 가옥은 80cm에 이른다.

6. 고찰 및 토의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영동지방과 복흥은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지만, 영동지방에는 북동 기류에 의한 폭설이, 복흥은 북서 계절풍에 의한 잦은 눈이 특징적이다. 이와 같은 강설 특성의 차이는 두 지역의 가옥 구조에 영향을 미쳤다. 여기서는 두 개 지역 간에 비교가 가능한 가옥 기능의 집중도, 뜨락과 까대기의 설치 유무, 부엌의 면적 등을 눈이 적게 오는 지역과 비교·고찰하였다.

영동지방과 복흥 민가는 집중형 가옥이다. 영동지방의 민가는 주거 공간이 하나의 지붕 아래 모아져 있어서 건물 안에서 모든 공간으로의 이동이



사진 2. 겨울철 차양에 둘러진 비닐 문과 까대기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반월리 윤방호씨 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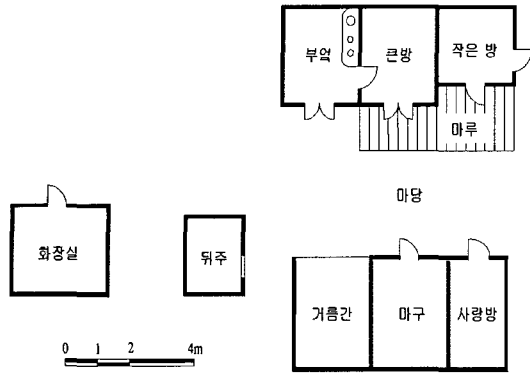


그림 10. 창녕·의령지역의 민가(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선소리 최윤희씨 덕)

가능하다. 정지는 겨울철 생활 공간의 중심으로 안방 및 뒷방, 마구와 접하고 있다. 북흥 민가도 주거공간이 하나의 지붕 아래 모아져 있다는 점은 영동지방과 같지만, 작은 정제와 외양간은 토방을 통하여 출입해야 한다. 반면, 눈이 적게 오는 경남 내륙의 창녕·의령지역의 민가는 분산형(分散型) 가옥이다. 그림 9와 같이 안채에는 부엌과 두 개의 방, 마루만이 있으며, 사랑채에 사랑방과 마구, 거름간 등이 있다. 이는 영동지방의 가옥구조가 단동형(單棟型)으로 기능이 집중된 것이 겨울철의 많은 눈과 관련 있음을 시사한다.

눈이 많은 지역의 민가는 집중형 가옥이기 때문에 겨울철 생활의 중심지가 되는 부엌의 면적이 넓다. 영동지방 민가의 부엌 면적은 20m² 내외로 가옥 전체 면적의 31~41%의 비율이다(표 9). 북흥 민가의 부엌 면적은 19.8m²로 가옥 전체의 31.6%를 차지한다. 창녕·의령지역 민가의 부엌 면적은 9.3m²이며 가옥 면적의 16.6%에 불과하다. 이는 눈이 많은 지역에서는 부엌에서의 생활이 중요

하기 때문에 그 면적이 넓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동지방의 민가에는 뜨락이 설치되어 있으며 북흥의 민가에는 까대기가 설치되어 있다. 뜨락은 주로 가옥 내에서의 통행로로 이용되며 샷시문이 설치된 경우 가옥 안으로 눈이 들이치는 것을 막아준다. 까대기는 곱게 내리는 눈보다는 강한 바람에 동반된 눈보라가 가옥 안으로 들이치는 것을 차단하는 데 효과적이다. 즉, 비교적 눈이 곱게 내리는 영동지방에서는 뜨락 자체가 눈에 대비할 수 있지만, 눈보라가 동반되는 북흥에서는 가옥 전면 에 뜨락과 비슷한 공간인 토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보라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것이다. 눈이 적은 창녕·의령지역에서는 뜨락이나 까대기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시설을 찾아보기 어렵다.

영동지방과 북흥의 민가는 지붕의 경사가 비교적 급하다. 영동지방의 경우 지붕의 재료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평균 경사는 25.2°이며 기와 지붕이 26.8°로 가장 급하다. 북흥 민가의 평균 지붕 경사는 26.8°이다. 반면에 눈이 적은 창녕·의령지역 민가 지붕의 평균 경사는 23°이다. 이는 눈이 많은 지역 민가의 지붕 경사가 급한 것이 다설 현상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북흥의 민가에는 물받이가 설치되어 있으나, 영동지방에서 거의 볼 수 없는 것은 강설 패턴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 생각한다. 즉, 영동지방에는 폭설이 많기 때문에 물받이가 있어도 쉽게 파손되지만, 북흥의 눈은 폭설 빈도가 적어서 물받이의 설치가 가능하다.

7.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의 가옥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상

표 9. 가옥의 공간별 면적의 비교

(단위: m², %)

지역	부엌	마루	방	전체
강릉	19.8(33.0)	없음	34.6(57.5)	60.1
양양·고성	20.5(31.1)	10.0(15.1)	25.8(40.3)	64.1
북흥	19.8(31.6)	19.9(31.6)	23.1(36.8)	62.9
창녕·의령	9.3(16.6)	11.5(19.4)	24.5(42.9)	57.6

주: 1) 강릉과 양양·고성은 8칸집, 북흥은 전면 4칸 겹집, 창녕·의령은 사랑채를 포함한 가옥임.

2) 안의 숫자는 가옥 전체 면적에 대한 비율임.

청의 강설 자료를 바탕으로 영동지방과 북흥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한 후, 여러 차례의 답사에서 얻은 실측 자료와 면담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눈이 많은 지역에는 다설 시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단동형 가옥이 발달하였다. 영동지방과 북흥의 민가는 하나의 지붕 아래 가옥의 거의 모든 공간이 집중되었다. 이들 지역의 대부분 민가에서는 사랑채가 없지만, 눈이 적게 오는 창녕·의령지역의 민가는 분산형으로 사랑채가 있다. 또한 눈이 많이 내렸을 때 실내에서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엌을 넓게 하였다. 영동지방과 북흥의 민가 부엌의 평균 넓이는 20m²에 가까우며 가옥 전체의 30~40%에 이른다. 반면 창녕·의령지역 민가의 부엌 평균 넓이는 9.3m²이며 전체에 대한 비율도 16.6%에 불과하다.

다설지역의 가옥에는 눈을 막는 시설이 발달하였다. 영동지방의 민가에는 가옥 내의 통행로로 이용되는 뜨락이 있고 북흥의 민가에는 눈보라를 막아주는 까대기가 있다. 다설지역의 가옥은 지붕 경사가 급하다.

그밖에도 영동지방 민가의 뜨락은 적설량이 많고 적설기간이 길수록 폭이 넓고 높게 설치되었다. 즉, 해안에서 눈이 많은 산간으로 갈수록 뜨락이 높고 속초보다 눈이 많은 강릉지역에서 그 폭이 넓다.

민가는 주민이 그 지역의 기후 환경에 적응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형태로 건축되었다. 그러나 취락구조 개선 사업 시행 이후 지어진 가옥은 주변 환경과의 조화보다는 가옥 내부에서의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건축되었다. 이러한 가옥은 에너지 소비가 많은 구조 일뿐만 아니라 전국의 촌락과 도시 경관을 획일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고에너지 소비 구조의 가옥은 결국 환경의 파괴로 귀착된다. 그러므로 민가에 대한 연구는 미래 가옥의 설계와 조성에 선조들의 친환경적인 지혜를 원용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 가옥이 계속적으로 사라지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여러 지역의 다양한 기후 특징과 가옥 구조와의 관련성을 밝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 사

본 논문을 세심하게 심사하여 적절한 지적을 하여주시신 두분 심사위원과 답사 때마다 친절하게 도움을 주신 이장열 교수께 감사 드린다. 답사 중에 많은 도움을 주신 각 마을의 이장과 전영철 목수, 그리고 가옥 조사를 허락하여준 주민께도 감사 드린다. 수많은 답사를 마다 않고 동행하여 준 허인혜, 천재호, 류진상과 이름 없는 역마살 회원에게도 감사 드린다.

註

- 1) 10cm 이상 적설일의 비율은 전체 적설일에 대한 것을 의미한다.
- 2)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에 거주하는 목수 전영철씨(65세)의 증언에 의한 것이다.
- 3) 지역 주민들의 증언에 의한 것이다.
- 4) 장보웅(1996)은 이 지역의 정지 면적이 가옥의 1/2~1/3에 이른다고 하였다.
- 5)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 어흘리, 위촌리, 사천면 사기막리, 양양군 죽왕면 구성리 등의 주민들 대부분은 폭설에 대비하여 뜨락을 설치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 6) 이 지역의 민가는 대부분 한국 전쟁 시 빨치산 토벌 작전을 위하여 소개되었다가 전쟁 후에 재건되었다.
- 7) 작은 정제 위는 마루를 놓아 다락방으로 쓰였다.
- 8) 끓인 소여물을 넣어서 소가 먹을 수 있는 그릇으로 영동지방에서는 구멍이라고 한다.
- 9) 영동지방에서는 보일러를 설치하고 보온을 위하여 샷시문을 설치하였다.
- 10) 이때 동쪽의 측면은 샷시를 설치하지 않아, 샷시문 자체가 보온보다는 눈보라를 의식하여 설치한 것이라 생각된다.

文 獻

- 김광언, 1997, 한국의 부엌, 대원사, 143.
- 김기덕, 1998, 제주도 기후와 관련된 전통 가옥 경관 특성,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덕완, 1999, 호남해안지역의 겨울철 북서계절풍과 관련된 가옥형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병익, 윤석은, 1997, "한국의 동계 강수 분포에

이 승 호

- 관한 종관 기후학적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32(1), 31-46.
- 이병설, 1979, “남한의 강설 분포에 관한 연구,” 지리학과 지리교육, 9, 224-233.
- 임상규, 1997, “영동지방 민가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3(3), 157-167.
- 장보웅, 1977, “울릉도 나리동의 투방집 연구,” 지리학, 16, 25-34.
- _____, 1980, “한국 민가형의 분류와 문화지역구분,” 지리학, 22, 41-57.
- _____, 1996, 한국민가의 지역적 전개, 보진재, 502pp.
- 조성기, 지호경, 1986, “영동지방 민가의 조사연구 (I),”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5), 15-22.
- _____, 1987, “영동지방 민가의 조사연구 (II),”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1), 77-83.
- 조정식, 1999, “남부지방 남동해안형 주거의 상호 비교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5(1), 133-144.
- 최진식, 1990, “남한의 강설지역 구분과 강설의 지역적 특성,” 지리학, 41, 35-48.
- Kniffen, F., 1965, Folk housing: key to diffusion, *Annals of the A. A. G.*, 55(4), 549-577.

원 고 접 수 일 2001. 12. 13

최종원고접수일 2002. 3. 6